

野 조정식 “정치보복·야당파괴에 尹정권 너무한다가 설 민심”

“정적제거와 야당파괴에만 몰두하고 있어” “김건희 손 안 대면서 이재명 죽이기만 혈안”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계묘년 설 명절 정취한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탄압 수사 등이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한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 민심은 ‘윤석열 정권이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것이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했다.

조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의 칼부림이 온 나라를 휘젓고 있다. 전 정부 죽이기로 시작한 정치보복은 이재명 대표와 야당 파괴로 이어졌고, 노조 때리기 등 반대진영 전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하고 압살하겠다는 기세로 달려들고 있다”며 “1970~1980년대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

던 사회 원로들의 ‘비상시국회의’ 제안도 이런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에 밥먹듯이 소환통보를 날리고, 하루 조사면 되는 것을 이틀로 쪼개겠다고 ‘쪼개기 소환’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니, ‘반복소환 막장수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드러났듯,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적인 가짜뉴스 물이로 진실을 왜곡하고 수백건의 압수수색, 조작·기획수사로 오로지 ‘정적제거와 야당파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도 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에 대해서도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손끝하나 대지 않으면서, 오로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검찰의 횡포에 대해 분노하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판 18회 동안, 김건희 여사(325회)와 장모 최은순씨(113회)의 이름이 수백번(438회)이나 나오고,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였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작전 지시를 통해 8만 주를 직접 매도했고 모녀가 내부 정보를 수시로 주고 받았다고 한다. ‘누가 봐도 공범인데, 도대체 검찰은 뭐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며 “민주당이 더 강력히 싸워야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독재는 역사의 변곡점에 늘 다른 일



굴을 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을 짓밟아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부독재에 이어 이제는 검찰독재의 얼굴로 나타나고 있다. 헌법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공포정치를 통치수단으로 삼는 모습은 영락없는 독재

의 모습”이라며 “탄압은 저항을 낳고, 폭정은 분노를 일으킬 뿐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퇴행과 국가위기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이슬 기자

민주, 尹 ‘UAE 적=이란’에 “중동서 韓 외교력 크게 약화”

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밝혀 “적을 늘리는 외교…대오각성 강력히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이란’ 발언 논란과 관련해 “중동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 했지만, 결국엔 국민의 깊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란과의 관계 약화는 70억 달러의 이란 동결자금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항해의 안전마저 걱정해야 될 형편”이라

고 비판했다. 이어 “적을 줄이고 친구를 늘리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적을 늘리는 외교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가치 외교인가”라고 꼬집었다.

여당을 겨냥해서는 “국민의힘은 제2의 외교 참사에도 또다시 맞는 말이라며 윤 대통령 연호에 나서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대통령의 실언과 여당의 억지 변명에 멧드는 것은 바로 우리 외교이고 국익”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 최대 위협은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아직 4년이나 남았다. 지금이라도 빨리 고치지 않으면 대통령이 순방에 나갈 때마다 국민은 마음을 졸일 것”이라며 “대통령발 외교 위기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윤 대통령의 대오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UAE의 적=이란’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한국 정부는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불충분했다”라고 밝혔고, 오 원내대변인도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서선욱 기자

신민호 전라남도의원, 여순사건 생활 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신민호 전라남도의원, 여순사건 생활 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신민호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20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입법 시도 20년 만에 제정됐지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전남도의회가 여순사건 생활보조비 지원 제도를 마련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 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오성에 대해 큰 관심과 공감을 나타냈다.

신민호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20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입법 시도 20년 만에 제정됐지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전남도의회가 여순사건 생활보조비 지원 제도를 마련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 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민호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주철희 ‘함께하는남도학’ 소장이 전라남도 생활보조비 조례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으며,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 최관호 순천대 10·19연구소장, 윤연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이 지정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여순사건 유족회, 전남도의원, 순천시의회 전병희 의장을 비롯한 순천시의원, 시·군 관계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필

동부지역본부김승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